

ECONOMY

2025년 4월 22일 화요일

재개발·재건축 청산 지연...유보금 176억 ‘줄줄’

삼성 ‘시 사전 케어 알림’ 서비스
구독자전 고장 미리 진단해 수리

삼성전자는 구독 중인 가전제품에 대한 이상 징후를 인공지능(AI)이 발견해 안내하는 ‘AI 사전 케어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AI가 원격진단 시스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삼성전자서비스 전문 상담사가 AI 진단 내용 설명부터 방문 수리 예약까지 지원한다. 초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번거롭게 애프터서비스(A/S)를 직접 접수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서비스는 구독 대상 제품 중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로봇청소기, 에어컨드레서 등 10개 품목에 우선 도입됐다. 에어컨 냉매 부족 예상, 냉장실 이상 고온 감지, 세탁기 통진 모듈 점검 등 24개의 다양한 증상을 진단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AI 사전 케어 알림을 구독케어 서비스 가입 고객 대상으로 별도 요금 없이 제공하며, 향후 대상 품목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증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구독 고객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초 삼성전자 판매, 삼성전자서비스, 삼성전자 로지텍 등에 구독 전담 조직을 운영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정현아 기자

광주 7곳 조합 잔여자금 246억 중 70억 남아

전국 327곳 9000억 소진...“환수방안 마련을”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입주까지 마무리됐지만 조합 청산이 지연되면서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할 유보금이 소진되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327곳 아파트의 미청산 조합에서 청산 과정 중 9000억원이 쓰였는데, 광주에서도 7곳이 176억원을 소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국

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17개 시·도 청산조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기준 광주에서 해산 후 청산 단계인 조합은 7곳, 해산 당시 잔여자금은 246억 91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현재 잔여자금은 70억7000만원에 불과하다. 청산 과정에서 176억8400만원을 소진한 것이다.

특히 7곳의 미청산 조합 중 2곳은 잔여

자금 확인마저 어려운 상태다.

‘청산’은 재건축·재개발 조합 해산 이후 최종 단계로 조합의 자산과 부채 등을 정리하고 남은 돈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절차다.

조합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이 끝나면 1년 이내에 해산 총회를 열고 청산인을 선임해 재산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해산 때 남은 돈은 조합원들에게 1차 환급하고 소송 대응, 세금 납부와 채권 추심·변제 등을 위한 유보금을 남기고 청산 체제로 들어가게 된다. 청산인은 통상 기존 조합장이 맡는다.

그런데 상가·아파트 소송이 끝나지 않

았다거나, 세금 납부 및 환급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산인이 차일피일 청산을 미루며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빈발한다. 청산인 월급과 운영비로 많게는 매월 수억 원이 줄줄 새 나가면 그만큼 조합원들이 환급받을 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현재 조합 해산 이후 청산 단계에 들어간 아파트 단지는 327곳이며, 해산 당시 잔여자금은 1조3880억원 규모였다. 그러나 남아 있는 잔여자금은 4867억원 뿐이다. 청산을 진행하며 9013억원을 쓴 셈이다.

김영호 의원은 “소송지연 등 고의로 청

산을 지연하며 부당하게 쓰인 조합원들의 돈을 환수하고, 조합원들에게 정당하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정부는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재건축·재개발 청산 절차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독할 수 있게 됐다. 특별한 이유 없이 청산을 미룬다면 정부·지자체가 청산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국회에서는 해산·청산 단계에서 조합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경총, 5월 금요포럼 ‘트럼프와 혼돈’ 강연

광주경영자총협회는 ‘트럼프와 혼돈의 시대’ 등 다양한 주제로 5월 금요포럼 포럼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다음달 9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미래에셋 WM혁신본부 상무인 서상영 애널리스트가 ‘트럼프와 혼돈의 시대’를 주제로 첫 강연을 연다.

이어 16일에는 중국연달그룹 특별고문인 조평규 박사가 ‘한국기업의 중국진출 전략’ 주제로 강연한다.

또 23일에는 대북전략컨설팅 김동식 대표가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과 대남공작’을 주제로, 30일에는 한국협업진흥회 회장인 윤은기 박사가 ‘조선과 초리스크시대-

협업으로 창조하라’ 주제로 연단에 선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4월 포럼 주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전 세계가 관세정책 여파 등 무역전쟁으로 어려운 시점을 겪으면서 미국 수출과 유럽 진출에 대한 대안을 모색했다면 5월 포럼 주제는 국내 조기 대선과 계속되는 혼돈의 트럼프 행정부 등 중국 국제 이슈에 대한 주제로 회원 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희망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금요포럼 포럼 참석 및 회원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회원사업부(654-3426)로 문의하면 된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주)지금강이엔지, 마른논씨레질 이앙 기술 연사회

내일 영암서 진행...일손 분산·ESG농법 등 각광

(주)지금강이엔지(대표이사 김식·사진)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전남 영암군 삼호읍 망산리 1061-1에서 마른논씨레질 이앙 재배기술 연사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남농업기술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농업인, 농협 관계자, 시·군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사회에서는 벼 마른논씨레질 재배 기술이 소개된다. 이 기술은 씨레질로 논을 수평을 잡는 과정을 3~4월 레이저 균평으로 대체하고, 모내기 10일 전 제조, 7일 전 답수(5일 이상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씨레질을 레이저 균평작

업으로 대체해 농번기 일손을 분산하고, 최대 58% 농기계 사용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또 비점·흙탕물·비료·농약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물 사용량을 절감해 저탄소 ESG농법도 실현가능 하다.

이와 함께 국립식량과학원 재배생리과 이윤호 농업연구사의 벼 마른논씨레질 이앙 재배기술 설명도 진행된다. 이후 현장에서 (주)지금강이엔지의 멀티롤 고속쟁기(경운·로터리 동시작업)와 레이저 균평기(흙을 옮기며 땅을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기) 시연이 이어진다.

멀티롤 고속쟁기는 쟁기질과 동시에



로터리 작업을 수행해 농사 과정을 단순화하며, 한 번에 두 가지 작업을 할 수 있어 농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

비, 인건비 절감으로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품의 내구성 확보를 위한 하독스 재질 보습날과 그라운드 롤러 장착, 다기능화를 위해 최적의 회전수(RPM) 작동과 충격흡수오토미션장치를 장착하는 등 (주)지금강이엔지 기술력의 집합체다.

김식 대표는 “멀티롤 고속쟁기를 통해 마른논씨레질 이앙 재배기술과 작파 농법의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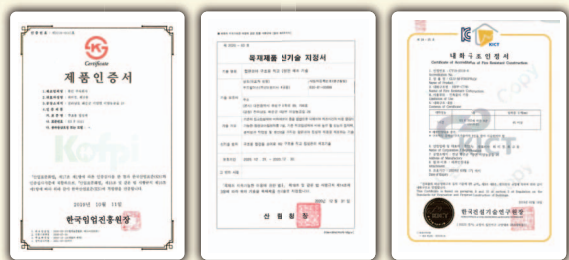
송대웅 기자 sdw0918@

대한민국 탄소중립에 앞장 서겠습니다

휴인주식회사
HUIN Co., Ltd

전남·곡성 모들러 주택단지 / 휴인 설계·시공

공학목재(구조용 집성목재) 제조·공급하는 지역기업 입니다.



집성목재 생산 및 납품



화순 - 지류센터 목구조 골조



화순 - 지류센터 목구조 설계지원 및 시공

- 목조건축 상담 및 설계지원
- 건축구조재(CLT) 신기술 인증 보유 기업
- 내화구조 1시간, 2시간 인증
- 구조용 집성목재 생산·시공(KS인증 보유)

(문의 및 상담) Tel. 061-271-5777 / 062-945-0036-7 www.huin.kr



농협 광주본부는 최근 광산동에 소재한 딸기재배 스마트팜 시설을 갖춘 ‘빨강농장’에서 지역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농촌체험 프로그램 ‘농촌에서 놀자’ 발대식을 가졌다.

농협 광주본부, 체험 프로그램 ‘농촌에서 놀자’ 발대

농협 광주본부는 최근 광산동에 소재한 딸기재배 스마트팜 시설을 갖춘 ‘빨강농장’에서 지역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농촌체험 프로그램 ‘농촌에서 놀자’ 발대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기재관 임곡농협 조합

장, 김시라 광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 장국공립 중흥나래어린이집 아이들과 학부모 40여명 등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딸기 수확과 보틀케이크 만들기 등 농촌체험과 농업시설을 경험하며 지역 농업과 농촌문화의 가치를 체감했다.

‘농촌에서 놀자’는 농협 광주본부가 지난해 10월 광주시농업기술센터와 맺은 행복농촌 이음 협약을 바탕으로, (사)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와 연말까지 10회 이상 릴레이 농촌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 사업은 도시민에게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 농촌의 활력 증진과 도농교류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포스코·현대차그룹, 합작투자·이차전지 ‘협력’

현대제철 美 제철소 지분투자 등 업무협약

현대자동차그룹과 포스코그룹이 철강, 이차전지 소재 등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는다.

양 그룹은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현대차 강남대로 사옥에서 한석원 현대차그룹 기획조정본부장(부사장)과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미래전략본부장(사장) 등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철강 및 이차전지 분야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모빌리티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글로벌 주요 시장 및 미래 신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그룹은 북미 철강 시장 진출의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하고 모빌리티용 고품질 철강과 이차전지 소재를 공급하는 소재 기업으로서 입지를 확장한다는 목표다. 두 그룹은 먼저 철강 분야에서 급변하

는 글로벌 통상 환경과 탄소저감 철강 생산 전환 등 과제에 대응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포스코그룹은 현대차그룹의 미국 루이지애나주 전기로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에 지분을 투자하고, 일부 생산 물량을 직접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현대제철은 총 58억달러 규모의 루이지애나 제철소 건립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원료부터 제품까지 일관 공정을 갖춘 자동차 강판 특화 제철소로, 고로(高爐) 대비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 고품질 제품을 생산해 연간 270만t 규모의 열연·냉연 강판 등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